

장 백 산 천 지

제 165 호

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생명의 기적

료패여(廖佩茹)는 대만 수림고원고급중학교 영어교사이다.



2004년초, 미국포드대학교 박사반에서 공부하고 있던 료패여는 불행하게도 《류풍습성관절염》에 걸려 손가락으로부터 두손 팔꿈치, 어깨까지 확산하여 나중엔 두발도 걸을수 없게 되었다. 그는 많은 의료비를 썼지만 좀처럼 치료할수 없어 그만 실망하고 말았다. 그는 유서를 써놓고 대협곡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산후 거기에서 자살하려고 작심했다.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터넷에서 건강회복정보를 찾아볼때 갑자기 명혜망에 실은 《류풍습성관절염이 기적처럼 완치되었다》는 문장을 읽어보고 한가닥의 희망이 생기게 되였다.

료패여는 즉시 인터넷사이트에서 파룬궁서적과 공법교수록상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열심히 읽어보았다. 그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여 한달후에 그의 병은 완치되었다.

료패여의 몸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자 그의 어머니, 녀동생, 많은 친구들도 파룬궁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대륙과 해외에서 높은 학력을 가진 수많은 지식분자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을 거쳐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파룬궁은 초상적인 과학이라는것을 친히 실증하였다.

“찐싼런”국제미술전람회가 미국 사이판섬에서

지난 3월 27일, 미국 사이판에서 제 4 차 “찐싼런”국제미술전람회”를 열고 세계각지의 9명 화가가 그린 30 폭의 작품을 전시했다.

사이판섬 시장 프르레이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응당 그림전람회를 보아야 한다. 나는 그림전람회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사이판 시장과 진소평이 함께 찍은 사진(진소평이 그린 “진감”은 금상을 받았다.)

“찐싼런”미술전람회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40여개 나라에서 100여차례 소집되었고 파룬궁수련생들이 직접 그린 “찐싼런”미술작품은 파룬따파의 상서롭고 아름다움과 대륙에서 받은 파룬궁학원들의 잔혹한 박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절찬을 받고 있는 신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난 4월 6일 저녁, 신운순회예술단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국회의원 쏘웨 턴스톤녀사는(윗사진) 《신운공연은 이어듯 아름답고 색채가 풍부하며 신불의 존재를 표현했다. 신운공연이 표달한 내용은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수 있다.》라고 감탄하여 말했다.

캐나다 아이드멍에서

지난 4월 1일, 신운국제



예술단은 캐나다 아�프타성 수부인 아이드멍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하여 관중들을 감동시켰다.

해외화교 작가 성설(盛雪)은(윗사진) 《신운은 중화문화의 선과 미에 대한 추구를 표현했고 그가 가져다주는 정보는 인류사회에 대한 경종이다. 신운의 세계예술단 400명의 백여 차 공연은 한낱 기적이며 신적이다.》라고 감격하여 말했다.

한국에서 7 천만 중국사람들이 중공에서 퇴출함을 성원



지난 4 월 11 일, 한국퇴당봉사 중심에서는 한국 안산시에서 7 천 1 백만 중국사람들이 중공에서 퇴출 함을 성원하는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집회현장과 시위행진 행렬은 각국 유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 3 가로교소에서 박해 받아 정신의상에 걸린 파룬궁학원들

지난 4 월 7 일 명혜망주간에서 료녕성 마 3 가로동교양원에서 박해를 받아 정신의상에 걸린 30 여명 파룬궁학원들의 정황을 소개했다. 아래에 그중 일부분만 싣는다.

소국진(苏菊珍)은 호로도시 수중현전소진의 파룬궁학원이다.(옆사진)



1999년 10월 31일, 마 3 가로동교양원에 간혀 참혹하게 시달림을 받았다. 어느날, 악경 왕연평이 그의 옷을 벗기고 온밤 전기충격을 하여 그의 얼굴은 부어났고 물집이 졌다. 악경 구평은 그를 심양

모병원에 끌고가서 신경중추를 파괴하는 약을 먹여 정신의상에 걸리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20일동안 밥을 먹을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바라 볼뿐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상실되고 생활을 자립하지 못했다. 2006년 4 월 8일, 그는 세상을 떴다.

리춘란(李春兰)은 료녕 성철령시청하구 조선족파룬 궁학원이다. 3 차례나 마 3 가로교소에 간혀 혹형과 시달림에 정신의상에 걸렸다.
(옆사진)



리경화(李景华)는 조양시 룽성구소도바향의 파룬궁학원이다. 1999년 10월 30일, 마 3 가로교소에 간한 그는 벌서기, 전기충격, 작은 방에 가둬넣기 등 혹형을 당하여 2001년에 정신의상에 걸렸다.(옆사진)



10년동안 박해를 받은 파룬궁수련생 장배제



1996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한 장배제(张倍齐)는 “쩐싼련”을 준칙으로 부단히 심성을 제고했으며 인이 박혔던 술 담배를 끊었고 그의 몸에 있던 여러가지 질병들도 모두 사라졌다.



1999년 9월 19일, 장배제는 북경에 상방가

는 도중, 대련시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구류 당다가 안도현간수소로 압송되어 한달동안 모진 심문을 받았다.

2000년 6월, 장배제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연길시간수로에 갇혀 여러차례 호되게 매를 맞고 연길시로교소로 압송되었다.

2001년 11월, 장배제는 또다시 북경에 상방갔다가 북경통주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구타를 당한후 안도현간수소로 압송되어 왔고 12월에 연변로교소로 전이된 후 매끼니마다 먹는것은 두냥도 안되는 옥수수떡과 얼마 안되는 채와 국뿐이였다. 그리하여 한달도 안되어 그는 여워여서 피골이 상접했다.

2001년말, 구대로교소로 옮겨온 장배제는 악경 장명재, 광일평, 장신 등이 쪽하면 달아매 놓고 마구 때려 온몸이 피투성이 되였으며 전기 몽동이로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충격했다.

2004년 3월 20일, 장배제는 안도현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신명주, 김진산, 우학 등 악경들이 일주일동안 심문하며 혹형을 당했고 4월 28일, 안도현간수소로 압송된 장배제는 련속 일주일동안 굶었고 매를 맞아 걷지도 못했다. 안도현법원에서는 비밀리에 개정하여 장배제를 5년도형에 언도하고 장춘철북감옥에 압송했다.

2006년 4월초, 길림감옥으로 전이된 장배제는 엄격관리대상으로 되여 악경들에게 늘 침대에 사지를 늘그기 혹형을 당했다. 7월 26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악경들은 장배제를 사지를 늘그기 혹형을 감행하고나서 사정없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쳤다. 여러분 기훈해 쓰러진 장배제는 나중에 사지가 마비되고 온몸이 불구로 되였다.

8년동안 감옥에서 온갖 박해를 받아온 장배제는 2009년에 만기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1년도 채 안되어 2010년 2월 27일에 청도시에서 또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연길시간수소에 갇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